

9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재학생 교양

주는 기쁨 : 14대 총여학생회

받는 기쁨 : 대동학교 참가 재학생 모두

● 글 쓰는 순서

0. 들어가며

1. 되새겨보는 대동학교의 의의
2. 올해 대동학교가 가지는 의미
3. 대동학교의 구체적인 일정
4. 교사는 이렇게!
5. 교사 교양자료
 - 문예공연 설명 (줄거리와 생각해보기)
 - 세상속으로 잘하기 위한 교양내용

0. 들어가며

대동학교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간의 짧지만 소중한 이 시간에 새내기들과 함께할 재학생, 교사님들. 아시다시피, 대동학교는 새내기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느끼고 고민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장이자 그동안 받아왔던 성차별 교육속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인간관을 극복해가는 장입니다. 그리고 삶속에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것인가를 고민하는 장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는 것 아시죠.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새내기들과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고 그속에서 내가 한 역할을 한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 합니다.

1. 되새겨보는 대동학교의 의의.

대동학교는 첫째, 새내기 맞이 사업을 총화하는 장으로서 새내기들이 올바른 삶에 대한 고민속에서 여성문제, 사회문제를 그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장으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둘째, 왜곡된 교육과 문화속에 길들여진 자신의 모습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셋째, 여학생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학생회, 학생회 활동의 주인으로서 주체의식을 함양하는 장입니다.

넷째, 선·후배와의 진지한 만남을 통해서 대학인으로서의 삶을 익히고 자질을 높이는 장입니다.

다섯째, 복원 새내기들의 어울림의 장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입니다.

여섯째, 중요한 새내기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전 단위의 결함력을 높여낼 수 있는 장입니다.

2. 올해 대동학교가 가지는 의미.

99년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준비하면서 우리 새내기들은 어떠할까를 고민했었습니다. IMF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픔을 아는 새내기들, 하지만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20년이라는 제도교육속에서 길들여져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새내기들. 이런 새내기들이 새터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여학생회라는 생소한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더 발전된 고민을 가진 새내기들과 함께할 대동학교는 어떠해야 할까요? 새터에서 던져준 고민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위로 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취임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이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여성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직속기구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럴듯한 여성정책을 계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지만, 여전히 엘리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천만 민중여성들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보여주기식,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특별위원회 5개부처 신설,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비례대표 할당제 등 법제도적인 여성문제 해결이 민중여성들의 삶에서 얼마만큼 풀어낼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중들의 삶속에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일어서야할 문제이지 법으로 명시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야기가 부각되고 있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속에서 본질을 짚어내어야 하겠습니까. 여성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 남성 모두가 억압받고 있는 인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인 해결의 의지를! 이것이 바로 9기 대동학교가 새내기들과 함께, 재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3. 대동학교의 구체적인 일정

♣첫째날 (16일 화)

◎입학식

-식전행사: 교가, 몸짓 배우기

단대 확인

-본식: '교가 부르기

'내빈인사

'교사, 학생 선서

'문예 공연

'교장 선생님 인사

'마무리 노래(교가)

◎영상물 상영

여성문제를 다룬 영상물을 보고(30분)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시간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그려본 인생곡선을 통해 나의 삶과 여성문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알아본다

-단대, 과 별로 진행하되 그 내용과 형식은 중앙에서 준비한다.

♣ 둘째날 (17일, 수)

◎ 세상속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강연과 실천활동으로 구성됩니다.(세부내용은 아래에)

⇒ 세상속으로 세부내용

제목	강연 내용	실천활동	강사	장소
성폭력	성폭력의 실태, 대처방안, 학칙 제정 중심으로..	만화에 대사 넣기	대구여성의전화 -조윤숙	
탁아	탁아의 필요성과 여성 노동권	자활들과 대화	디딤어린이집 -홍미숙	
여대생 실업	여대생 실업고 여성 정리해고	북문 선전/설문조사	대구여성회 -김영순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의 삶, 미군 범죄와 여성문제	미군,다비타의집, 한.미 대통령에게 편지 쓰기	미군기지땅되찾기대구시민모임 -배종진	
가정폭력	실태, 의의와 가정폭력방지법 (비디오 시청과 내용정리)	가정폭력 상황극	농대여학생회장	전산소 세미나
강제 중군 위안부	강제중군 위안부문제의 현재 진행상황과 현대적 의미, 우리의 방안	토론후 위안소 지도 만들어서 한마디씩 쓰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영섭	
사이버 세계의 성폭력	통신, 인터넷 상의 성폭력 실태와 대책	각 단대 pc실에 붙일 음란 사이트 접속 금지 포스터 제작	대구여성회 -윤혜정	
북한 여성	북한 여성의 삶을 알아보고 북한과 통일 한반도의 여성문제를 생각해 본다	북한 여성의 삶에대한 퀴즈 맞추기	총여학생회 부회장 (도라지꽃 시청)	

◎ 졸업식

- 노래, 몸짓
- 세상속으로 정리
- 중앙운위 한공연
- 모범 시상
- 교장 선생님 정리
- 타임캡슐 만들기:2000년 대동학교에 올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 대동놀이

- OX퀴즈
- 소원나무 만들기:새천년으로 나아가며 고쳐졌으면 하는 소원들을 적어 붙임
- 춧불놀이:차분히 대동학교를 정리
- 한판 몸짓/컴공과 여학이 준비한 포크댄스

◎ 뒷풀이

4. 교사는 이렇게!

대동학교 교사는 여성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으며 대학에서 경험했던 고민들을 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새내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 하는 모든 선배들이 가능합니다.

교사는 대동학교 기간동안 새내기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책임지는 책임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교사가 바로서야 신입생 또한 모범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먼저 교사는 제안서를 들고 새내기들을 만나면서 대동학교가 무엇인지 알려내면서 신입생을 모아내고 대동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사는 대동학교 당일 새내기들을 모아서 데리고 오며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사는 행사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새내기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대동학교가 끝난 후에도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분임토론을 할때 교사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혼자 줄줄줄 얘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아시죠? 그것은 또 다른 주입식 교육 그 자체니까요! 강연내용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토론기조를 잡아주고 그 틀거리 속에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토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이것만이라도 잘 해낸다면 훌륭한 교사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5. 교/사/ 교/양/자/료

1) 9기 대동학교 문예판 해설- 다시 쓰는 심청전

♣취지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렇지 않고 진리고 선이라 배워 왔던 동화를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평범한 듯한 우리의 일상과 관념에 얼마나 많은 여성문제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또한 '그렇다면 올바른 상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줄거리

눈이 먼 심봉사는 무당으로부터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심청에게 전한다.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드리고 싶어 고민하지만 어려운 IMF 시대에 여성으로서는 직장을 갖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그때 심청 앞에 나타난 한 남자.. 바로 돈이 궁한 심청을 매매춘의 길로 유혹하려는 자이다. 그러나 심청은 여성의 성상품화와 영계문화, 매매춘을 부축이는 사회분위기에 분노하며 거부한다. 남자와 심청의 실랑이 도중 심청은 그만 인당수에 빠지고 만다.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도착한 곳은 용궁. 그곳에서 직장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 물고기를 만나 그와 함께 용궁의 재판을 걸게 된다.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공방과 남녀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결국 결혼해 주겠다는 남자 물고기의 한마디에 무죄로 판결된다. 이에 분노하던 심청은 결국 용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용궁에서 쫓겨나 연꽃을 타고 떠돌던 심청은 그나라의 왕과 만나게 되는데... 왕은 여자의 인생은 결혼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은 모든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백마탄 왕자임을 과시하며 청혼한다. 그러나 심청은 무시하고 갈길을 간다.

결국 심청이 왕과 결혼하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드리지는 못했으나 나름대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생각해 보기

① 여성실업

IMF 이후 사회적으로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너도 나도 실업자이니 여자가 실업자인게 무슨 문제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혹은 그나마 가족부양의 책임이 없는 여성 실직이

훨씬 좋지 않느냐는 그럴듯한 논리를 드리대기도 한다. 그러나 다만 경제가 어렵기에 정리하고 중여성의 비율이 80%를 웃도는가? 여성 노동력은 과연 보조적이거나 취미 생활인가? 게다가 여대생의 실업! 실지 별로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틈을 타 미모가 채용의 기준으로 다시 슬그머니 등장하고 있다. 여성에게는 능력과 아름다운 미모 가꾸기의 이중부담이 주어지며 그렇게 채용된 여성역시 직장의 꽃 이상은 되지 않는 것이다.

②매매춘 -여성의 성 상품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아니 어려운 시대라서 더욱 번창하고 있는 것이 매매춘 향락 사업이다. 매매춘.. 과연 쉽게 돈벌고 싶어하는 의지 박약의 여성들이 스스로 판 무덤일 뿐일까? 우리 사회는 매매춘을 부축이는 정도를 넘어서서 매매춘 산업을 적극 창출, 양성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운영하는 매매춘 알선 이벤트사가 적발되기도 했듯이... 많은 사회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일단 생각해 볼 문제, 하나) 영계 문화. 초등학생까지 매매춘 유혹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두나) 다수의 정숙한 여성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들의 주체할 수 없는 성충동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춘이 필요하다는 인식?

③직장내 성폭력

얼마전 남녀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고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직장내 성폭력은 단순히 성폭력의 차원을 넘어서 생존의 공간, 인격 실현의 공간인 직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으며 여성을 직장내 성적 노리개 쫄음으로 생각하는 현실에 기반한 것이다. 물론 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규제와 예방효과가 기대되지만 법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여성의 성을 정조의 개념으로 보고, 강간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한다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법부와 이 사회의 인식이 있는 한 그 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④결혼과 여성, 그리고 신분상승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신분상승의 유력한 방도로 인식되고 있다. 남편의 지위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결정되고, 부와 명예를 함께 안겨 줄 백마탄 왕자는 아직도 선망의 대상이다. 우리 시대의 결혼과 자아 실현에 대하여...

2) 영상물 상영- 눈으로 보는 여성문제

: <낮은 목소리1> 내용정리는 차후에

3) 세상속으로

대동학교 졸업생들에게 대동학교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으면 열에 아홉은 '세상속으로'가 떠오른다고 할만큼 대동학교에서 '세상속으로'가 가지는 자리는 큼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세상속으로'를 대동학교의 통과례쯤으로 여기는 모습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내기처럼 새롭게 '세상속으로'의 의미를 돌이켜봅시다. 대동학교에서 담고자하는 내용을 이론만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 각 조별로 교사의 책임하에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속으로'입니다.

'세상속으로'에는 8개의 강연과 거기에 따른 실천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재학생, 교사가 강연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강연내용과 이것만은 알고 대동학교에 임하자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꼭! 꼭! 읽어보시고 될 수 있다면 단대별로 다시금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성폭력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성과 사랑이란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남녀가 서로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그 역할은 무엇이며, 태도와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받습니다.

- 우리사회의 성문화

1) 남녀에게 상이한 성사회화와 성교육

① 남녀는 각종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성의 각본을 통해 왜곡된 성역할을 배우고, 성에 대한 다른 기준과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고교 시절 음란 비디오, PC통신의 음란사이트나 인터넷, 사이버 섹스, 스포츠 신문이나 플레이보지등에서 반면에 여자는 하이틴 로맨스나 순정 만화를 통해서 성에 관한 나름의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며 사랑과 결혼을 동일시하면서 자라는 여자에 비해 남자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성지식을 습득해 그 둘의 차이는 현격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② 성기에 대한 다른 평가나 남녀의 귀가 시간과 활동 반경의 문제, 순결 위주의 공식적 성교육과 왜곡된 비공식적 성정보의 습득의 엄청난 모순 속에서 남녀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남성다움과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여성다움을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프로포즈는 남자가 하는 것과 첫날밤에는 남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의 생각을 더듬어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③ 문제는 성에 있어 남녀간의 의사 소통이 왜곡되어 있고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No는 곧 Yes로 오인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강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내숭을 떠는 것은 귀여우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딘가 모르게 음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성기준과 이중 규범

(1) 과장되고 허용적인 남성의 성

① 남성은 일을 위해 살며 사랑은 세계의 일부이며, 사랑과 성은 그다지 일치될 필요도 일치될 수도 없다는 분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즉 정신적 사랑 없이도 육체적 사랑(성관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남성에게 있어 성은 배설, 성행위는 단순한 욕구 충족으로 전락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게 혼전성관계나 매매춘, 외도가 일정 정도 허용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돈을 매개로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진 것도 남성의 성욕을 주체할 수 없고 이것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그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창녀촌에 가게 된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② 남성간에는 활발한 성지식이 교류됩니다. 성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경험이 많은 것이 남성다운 모습이라 생각하고 성관계 방식이나 테크닉, 쾌락이 주요 관심거리가 됩니다. 크기 콤플렉스(목욕탕에서 서로간의 성기를 은연중에 비교하는 것), 변강쇠 콤플렉스, 카사노바 콤플렉스 등을 갖고 건강한 성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살아가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③ 성의 상품화와 퇴폐 향락 문화의 만연속에서 성의 방종, 성에 중독(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환경)되는 경향이 농후하며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처녀는 순결과 동일어이며 정숙한 여자와 매매춘 여성은 반대어라고 여성을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라는 두 부류로 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억압되고 위축된 여성의 성

- ① 여성은 사랑을 위해 살며 육체적 사랑보다는 정신적 사랑을 중요시여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결 이데올로기와 처녀막 신화를 만들어 냈으며 성적 무지가 순지무구의 동일어라는 얼토당토않은 신화를 유포시킨 것입니다.
- ② 정숙한 여자의 본능은 성욕보다는 모성 본능에 있다고 합니다. 여성 스스로 자신에게는 성욕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억누를 수 없는 남성의 성욕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내면화시킨 채 성적 무지를 여성다움의 표본으로 인지하고 낭만적 사랑으로 성적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 ③ 항상 몸조심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 방어적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남성의 성욕 대상으로서 사물화되고 순결 의식이 강할수록 여성의 성은 피해 의식,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등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압당하고 자기 몸단속을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성의 남성중심성

- ① 우리 성문화는 '남성중심적 성'과 '성기(성교) 중심적 성'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여성 역시 내면화하여 보편 타당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음담패설, 포르노, 음란물도 모두 남성의 성경험이 중심이 되며 여성도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즐깁니다. 이것의 제작자와 소비자는 거의다 남성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사랑과 이해가 배제된 채 성교만으로 오르가즘에 이르며 성을 탐닉하거나 성교를 즐기는 매춘 여성이 대부분이라 남성들을 일상 속에서도 여성을 은연중에 이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지니게 됩니다.
- ② '성기(성교) 중심적인 성'의 '성'의 강조는 남성 위주의 성이해와 성문화의 단적인 표현입니다. 여성에게 있어 성이란 결코 '성기 삽입 위주의 성교'로만 축소될 수 없고 일련의 인간 재생산 과정(월경-배란-성교-수정-착상-산고-출산-수유-양육)과의 관련 속에서 존재합니다.
- ③ 성행위의 기준과 목적을 성기 삽입으로 보는 것은 여성적이지 않습니다. 예로 성교시에 사용되는 성행위를 묘사한 전회, 후회 등의 용어나 남녀의 성매카니즘의 차이, 강간 성립의 근거를 성기 삽입의 여부로 보는 것, 강간을 폭력이 아닌 성관계로 인식하는 순결 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④ 성을 정복과 소유, 통제를 위한 권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계급 상승을 위해 여성의 성을 극도로 억압한 열녀문이나 여성에게 정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기반한 은장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이 권력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도 남자에게 있어서는 성관계가 훈장으로 인식되고 '도장을 찍었다' '따먹었다'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고,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한 여고생을 모 방송국에서는 '정조관념이 희박한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행동이었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가 피해여성과 결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보면 여전히 정복과 소유,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성과 사랑을 분리시키고, 남자의 사랑 없는 성관계를 인정하는 풍토는 매춘의 성행과 여성의 대상화, 사물화, 절편화하는 성상품화와 향락문화를 낳습니다.

2) 우리사회의 성

우리사회의 경우는 성이라는 단어가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에 관한 논의가 개방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성'이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성,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 성교만을 연상합니다. 따라서 성은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없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문제이거나 개인적인 생리적 현상, 통제 불가능한 본능이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편협한 이해는 인간의 성을 '사회, 문화적 구성물의 총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행위중 가장 동물과 비교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대학 내의 성폭력 문제

1) 교수

① 교수님에 대한 언어 폭력으로 강의 도중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여자는 자고로 순종이 미덕이다” 등의 성차별적 발언하면서 여학생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이상 경험)

② 교수 성추행, 강간의 경우. 대학원 입학시 교수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교수라는 권력관계가 성립되므로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생간

① 학내 남학우들의 언어 폭력

대다수가 술자리나 뒷풀이에서 일어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학우가 술자리에 남아 있으면 “여자애가 무서운게 없냐, 이렇게 남아 있어도 되냐?” 라는지 “넌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있냐” 등으로 무언가 풀어헤쳐진 여자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학내에서 음담패설과 성희롱

③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성기를 몸에 접촉, 자위행위, 훑어보는 것을 50%이상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작년에 도서관에서 볼펜을 줍는 등의 눈가리는 행동을 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여학우의 다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④ 데이트 강간

예를 들면 1년 정도 사귀는 남자 친구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이지만 의사를 밝혔어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96년 연대항쟁(연세대에서 일어난 정권의 폭력적인 진압)에서 전투경찰이 여학우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모욕적인 욕설과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폭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회의원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를 하면서 여론화되었고, 그와 동시에 7명의 피해여학우가 용기있게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으나 무혐의 처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사태는 아주 아주 많습니다.

- 성폭력 규제학칙의 필요성

대학사회내에서 학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학칙이라 함은 학내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의미만을 담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칙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려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것은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행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제함과 동시에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리고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

을 위해서가 아닌 현재의 성폭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사고에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기에 학칙을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성폭력 학칙은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사회내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학생과 학생사이에 발생하지만 교직원과 교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교수와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권력관계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력의 하위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대학사회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며, 가해자나 피해자 중 일방이라도 대학 사회의 구성원이면 학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의 문제점을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의 침해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대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는 성적 자율권의 침해와 더불어 교육권-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라는 특수성을 지니게 됩니다. 대학 사회는 명백히 대학 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대학 사회의 구성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교육에 있다면 교육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대학 당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대학 당국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해결을 돌리며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권을 일정 정도 학칙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만이 아닌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서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서울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피해 여학우는 그 가해 남학우를 졸업할 때까지 서울대 교정에서 볼 수 없어야만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대로 실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입니다. 우리는 성폭력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내의 성폭력 규제 학칙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 사이버 성폭력- 단지 그대가 '여자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성폭력은 PC통신에서뿐만 아니라 음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모든 성폭력을 포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에서는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력이라니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라는 식의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여기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다시해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흔히 강간 등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성기삽입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이란 강간뿐 아니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다양한 성적, 또는 성에 기초한 원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성폭력의 예로는 1) 시각적(결눈질하기, 응시하기) 2)언어적(외설적 언급, 암시, 농담) 3)육체적(건드리기, 몸더듬기, 강간 등) 4)사진 및 낙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부장제 성문화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게하여 다수의 남성들에게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성적 표현이 용납되게 하고 이를 남성의 특권인 양 여기게 합니다. 즉 성폭력은 현 사회의 성계급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해, 성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현 가부장적 체계에서는 온라인 성폭력은 그 심각성이 그다지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은 성기 중심적인 성관계로 동일시되어 다른 정황들은 배제되고 오로지 물리적인 부분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이러한 왜곡되고 축소된 성개념은 성을 매우 은밀하고 더러운 것으로 인지시켜 공식적인 담론에서는 배제시키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끊임없이 관심이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담론이 가장 활성화되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PC통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PC통신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내의 성폭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짚어봅시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비록 사전적 의미대로 '가상의 세계'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은 모두 현실에 기반을 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는 현실공간과 밀접히 연결되며 나아가서는 현실공간의 문화와 문제점을 기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과는 달리 개인의 행동을 강제할만한 뚜렷한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즉 이 가상공간은 출입에 제한이 거의 없는 '선택의 현실'인 것이며, 그 안에서의 행동은 리얼스페이스에서 범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이상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관념을 보유한 가부장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수적으로도 열세인 여성들은 가상공간안에서 현실보다 나올 것 없는 상황에 접해야 합니다.

실제로 통신 자료실이나 대화방에서는 남성 사용자들에 의해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 성적 농담 일색이며, 어느덧 그러한 문화가 PC통신의 고유 성격으로 정형화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형화는 현 사회의 가부장제와 왜곡된 성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많은 남성들의 직접적/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명확합니다.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앞서 말했듯이 성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대체적으로 '성폭력'이라는 용어자체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식의 논리를 견지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친밀감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에 왜 여성들이 불쾌감과 수치심, 분노 등을 느끼는지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의 차이를 둔 교류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그 관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조차도 가해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성희롱과 친밀감의 차이는 '상호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호성은 일방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일방적인 성적인 표현과 접촉을 행하였을 때 의사가 전혀 존중되지 않은 그러한 행위들에 관해 친밀감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멍백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문제시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네티즌의 자정운동'이라는 이름하에 통신내의 문화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온라인 성폭력같은 사건을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 혹은 '통신 예절을 모르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극소수'의 일로 치부하려 할 뿐 성간의 권력구조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극히 드뭅니다.

통신의 가장 큰 특성인 익명성 또한 성폭력을 부추기는 큰 요인입니다. 지탄받는 행동을 하면 상당 기간 혹은 그 이상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현실공간과는 달리 통신에서는 그/그녀를 나타내는 단일한 표식인 '아이디'를 바꾸면 보통의 경우 지난 행동에 관한 추궁이 불명확하게 되어 묻히게 됩니다. 게다가 얼굴이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아이디를 대여받거

나 임시 아이디어를 쓸 경우에는 더욱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특히 PC통신에서의 성폭력은 수없이 자행되어 왔고 피해자들은 마땅한 대책이나 해결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처법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방편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갈무리하는 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 갈무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성폭력을 당하여 통신사내의 불량이용자 센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고발하려면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증거물이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화내용 갈무리입니다.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대화내용이나 쪽지, 메일 등 가해내용을 모두 갈무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에게 즉시 멈출 것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당황하고 자신을 두려워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대개 통신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이용자이면서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가해자가 보낸 메모나 전자우편을 모두 보관을 하고 그밖의 모든 접촉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가해를 한다면 그동안 확보했던 증거자료를 통신회사의 신고센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자 아이디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는 성폭력특별법 제 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법적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율권이 보장되고 불평등한 성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성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과 성적인 비하 등에 대한 전면적인 해결도, 해결하고자하는 시도나 지지하는 여론도 불가능할 것이고 이 상태는 지속될 것입니다.

● 여대생 실업괴담- 우리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여대생 실업에 관한 강연자료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대신 여성실업, 우선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면서 여대생 실업의 문제도 고민해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죄송!!)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꿈이라면악몽이라도 좋으니 제발 꿈이었으면

손꼽히는 재벌의 계열사에서 '커리우먼'을 향해 달려온 박아무개 (29.여)대리 .그의 바람은 이제 산산이 부서졌다.“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안타깝다.”는 이사의 말 한마디에 .

크리스마스의 '달콤함'이 채 가지지 않은 지난해 12월 26일. 출근하자마자 박씨는 이사의 호출을 받았다. 혹시 내가? 사실이였다. 회사를 온통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드디어 박씨의 가슴을 할퀴는 순간이였다.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했다. “고통분담 차원이라면 정리해고를 당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온 터였다. 해고 사실을 통보하는 이사의 일그러진 얼굴이 오히려 안쓰러웠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는 데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자신이 속한 마케팅국 정리해고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년차 이상 여직원은 사실상 다 잘린 셈이였다.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광고해오던 회사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회장님도 교육때마다 여

성의 구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돌이켜보면 우연도 짓궂은 우연이었다. 해고 통보를 받던 날, 신문에는 자신의 회사가 ‘여성우대기업’으로 선정돼 상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며칠 뒤, ‘해고 동료’들과 함께 이사를 면담했다. “우리가 여자라서 자른 것이냐.” 이사의 답변은 적어도 단호했다. “그렇다, 해고되더라도 경제적 타격이 적은 사람을 골랐다. 다음 ‘인사조처’ 때도 기준은 같다.”

사실 박씨는 이제껏 자신이 받아 온 성차별에 대해 스스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지난 95년 2월 ‘바늘구멍 뚫기’라는 회사에 공채로 당당히 입사한 그였다.

입사 뒤 첫 부서배치를 받으면서 “여자는 안된다.”는 이유로 지원 부서를 놓쳤지만, 박씨는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래, 그 일을 처음부터 꿈꿔왔던 건 아니었으니까.” ‘해외석사’라서 남자동기보다 직급이 높으면서도 편지 가져오기 같은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신입사원이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나이도 두 살이나 어리지 않은가,” ‘해외석사’라는 간판이 한국 여성에게는 오히려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박씨는 관대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남자 사원들이 “그래도 해외석사인데...”라고 비꼬더라도, “여자라서 속이 좁다”는 핀잔을 듣지 않으려면 꼭 참는 수밖에 없었다. 다 같은 대리를 부를 때 자기 이름 뒤에만 ‘대리’자를 붙이지 않았어도, 윗분들에게 내색 한 번 하지 않은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관용과 인고의 시간’을 끝나게 했다. 대신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시간이 시작됐다. 무언가 속에서 불쑥불쑥 치받쳐 올라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고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일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지금 박씨는 취직자리를 찾고 있다. 며칠 새 달라졌을 리 없는 ‘남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일로 마케팅 전문가가 되려는 제 꿈을 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성차별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박씨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사소한 성차별이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의 컷가엔 함께 이사를 찾아갔던 선배의 절규가 여지껏 맴돈다. “나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나를 페미니스트가 되도록 한다.”

- 왜 ‘여성먼저’ 해고인가

국가로서는 불명예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가 두 달을 넘어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일자리를 갖고 한 가족이 수수하게 살아가기에 큰 걱정이 없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비참한 ‘풍속도’로 자리잡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예퇴직’이라는 그럴싸한 제도로 대접을 하면서 실질적 감원을 하는 일이 당사자들의 불만을 샀으나, 이제는 그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정도로 해고 바람이

매섭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 해고 위협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실직이라는 날벼락 앞에서 특히 불안을 느끼는 이들은 여성이다. 요즈음 구조조정이나 경비절약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들에서 자녀를 2명 넘게 둔 여성은 최우선 정리대상이라고 한다. 그 뒤를 자녀 한 명인 여성, 기혼여성, 장기근속여성, 남성이 잇고 있다. 미혼인 직원들에게는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심리적 압력은 넣고, 임신한 여성에게는 '휴가를 가라'는 식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위로금이랴도 타려면 사직서를 고분고분 내라'고 다그치는 경우도 잦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고용구조'가 여성들을 정리해고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이화여대 차은영 교수(경제학)는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곤 우리 나라 여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 가치가 낮은 단순 업무 분야에 몰려있다"며 "따라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보면, 남성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성 노동력이 일차적인 정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 1순위'인 계약직, 촉탁 사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의 여성고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감원'을 하더라도 최대의 피해자는 역시 여성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고용구조'가 여성들을 정리해고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이화여대 차은영 교수(경제학)는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곤 우리 나라 여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 가치가 낮은 단순 업무 분야에 몰려있다"며 "따라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보면, 남성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성 노동력이 일차적인 정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 1순위'인 계약직, 촉탁 사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의 여성고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감원'을 하더라도 최대의 피해자는 역시 여성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 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뒤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에게 심각한 생존권 위기가 닥쳤다. 정부와 기업들이 '여성 먼저 해고'라는 잘못된 방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오랜 세월 남성이 독점해온 영역에 뛰어들어 외로이 일하는 여성은 남성 중심의 업무체계와 여성 차별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남성보다 뒤지는 체력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생리적 기능이 일으키는 노동 중단도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

여성의 이런 성적 특성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창의성이 뛰어나고 생산성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이엠에프 위기가 온 국민을 짓누르고 있는데, 유독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 정신대 -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95년 일본정부가 이미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은 정부차원의 책임을 부인하고 도덕적 책임만을 전제로 하고있기 때문에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국민기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해오고 있다. 그런데 96년 1월 6일, 국내 일간

지인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등에 일본의 국민기금 측에서 전면광고를 실었다.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정신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일간신문만을 골라서 전면 광고를 실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대협은 이 국민기금의 전면광고로 많은 독자들과 피해자들이 호도될 것을 우려하고 국민기금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겠다는 의도에서 1월 23일 국민기금 대응광고를 한겨레 신문에 게재했다. 그후 정대협은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정신대 할머니 지키기 모금'을 1,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대협 모금 1인당 410만 8천원과 정부지원금 3천150만원, 총 3천560만 8천원을 할머니들께 지급하였다.

2. 제 5차 아시아 연대회의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전범을 개최키로!

'제 5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가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이번 5차 아시아 연대회의는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이며 국가의 의한 전쟁범죄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각 나라 사정에 맞게 운동을 진행하겠지만 공동으로 뜻있는 일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2000년 12월 개최가 제안된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하기로 한 일이 결의문에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전범법정은 여성의 힘으로 전쟁 중 당한 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특히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중점을 두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최될 예정이다.

3. 시모노세키 재판 승소

<시모노세키 재판 경과>

98년 4월 27일 일본 야마구찌 현 지방법원은 2차 대전 당시 중군 위안부로 성적 노예 생활을 강요받은 3명의 위안부 여성에게 30만 엔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분석>

시모노세키 재판의 판결은 "일본국 헌법질서의 근간적 가치에 관련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해, 그것이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사상의 표현이며,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거에서 침해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유린한 것이며, 게다가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극복되어야 할 근원적 인권문제"라고 자리매김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일본국의 "배상입법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 일본국의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의의와 한계>

이 판결에 의해, 다른 아님 일본의 국가기관이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고 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판결을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일본국의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사과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함께 청구된 정신대 피해자들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배척되었고, 국제법 위반 여부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상충되는 하급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철저하게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여성인권유린의 전쟁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 희망만들기 - 아이에게 보육, 교육받을 권리를!

1. 들어가며

탁아, 어린이집하면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북한의 어린이가 생각난다거나 아이를 양육해야 할 어머니가 일정정도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맞벌이의 필요성, 여성의 자기 활동에 대한 필요성, 혹은 아이가 또래와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개발시켜주기 위한 필요성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왜 보육시설이 필요한지, 보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현재 보육사업의 현실과 발전방향은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로 비영리 어린이집인 디딤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희망만들기를 시작했으면 한다.

2. 왜 보육시설이 필요한가? (보육의 사회화)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어떻게 보육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게 떠오른다. 엄마의 사회진출이 자의든 타의든 늘어나고, 이전처럼 친척들이 대신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생활이 중요하게 되어가며, 핵가족화가 되면서 아이가 어떻게 또래 집단과의 사회생활을 배울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시되면서 보육의 사회화문제는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그로인해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 보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탁아운동의 역사

탁아운동은 해방이전인 192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시기에는 극빈자녀를 위한 보호의 측면이 강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후 부모가 직장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경우를 지원하다는 원칙으로 보육시설이 만들어 지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지탁연을 중심으로 하는 탁아운동이 생겨났다. 그로인해 보육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며,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때의 중요한 문제는 여성운동, 지역운동, 아동교육의 문제로 체계를 잡아나갔다. 이때의 중요한 문제는 보육의 사회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제정투쟁'이 벌어졌다.

현재의 보육이 일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인식이 어느정도 되었고, 이제는 이 보육시설, 내용의 문제를 시설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고민으로 '한국보육교사회'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보육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유만 생기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

4. 실제 디딤 어린이집의 하루 생활

: 강연시에 구체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5. 탁아활동과 여학생회의 관계

기혼여성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아이 양육의 문제가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으며 아무리 보육의 사회화가 인식이 되어도 일정정도는 여성의 몫인 것이 현실이다. 여대생은 대부분이 기혼여성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여학생의 조직인 여학생회에서부터 사회적 인식을 잘 만들어내야 보육의 사회화가 한층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래야 보육시설들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도 있겠지.

6. 현재 보육사업 상황

- 보육시설 확충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수(법인 포함)해서 97년 말 현재 20%정도 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도 80%정도이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경우도 대개가 수도권과 서울에 편중되어 지방의 경우는 턱도없이 어린이집이 부족한 사실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민간 어린이집의 영리화를 막기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야함에도 나라 경제 위기를 이유로 도리어 지원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대구의 서구의 경우도 그러하다.

● 미제(美制)? 미제(未題)!

1. 주한미군범죄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67년부터 98년 7월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49,774건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못한 범죄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많은 범죄가 있었을 것이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45년 9월 8일 미군주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67년에서야 미군범죄에 대해 부분적이거나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67년 이전에는 미군측이 일체의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정 기간동안에는 미국인들이 미군법정에서 영어로 한국인을 재판하였다. (재판관은 현역군인이었고 미국식 재판이면서도 배심원도 없는 단심제였다. 언어불통과 재판관의 몰이해와 편견, 통역관의 농간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67년부터 87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39,452건 (45,183명)인데 그 중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겨우 234건으로 351명의 미군만이 처벌받았을 뿐이다. 그 중 강간사건으로 처벌받은 미군은 84명으로 강도사건(8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의 재판권이 없었던 67년 이전에 강간사태가 더욱 빈발했다는 사실과 신고되지 못한 사건까지 합한다면 성폭력 범죄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미군 점령 1개월 동안 전국에서 강간당한 여성은 일본정부에서 실시한 최소한의 추정으로 3,500명을 넘었다는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광주항쟁이 일어났던 1980년에는 1,679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지만 한국이 계엄령 상황일때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적용이 즉시 정지된다는 조항 때문에 단 한건도 한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1946년 3월 미국 4명의 부녀자 윤간 사건을 필두로 56년 14세 소녀 강간사건, 67년 딸과 어머니를 함께 강간한 사건, 71년 산에서 약초캐던 여인을 미군 8명이 윤간한 사건, 86년 팀스피리트 훈련중 마을에 들어와 임신 6개월이었던 교사를 5명이 미군이 윤간한 사건, 96년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97년 5월 여섯 살 소녀 성추행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성폭력 범죄들이 계속되었다.

2. 미군 성폭력

45년 9월 8일 미군주둔 이후 한국여성들이 미군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였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성범죄에 대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것은 피해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군대의 주둔과 분쟁상황에서 여성과 아이들

은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되어왔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양산해내는 가부장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체제인 가부장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폭력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전쟁이라 생각한다. 휴전과 분단으로 인한 미군의 장기주둔은 한국여성에게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1) 여성인권의 문제

주한미군 범죄는 무엇보다도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이다. 여성과 남성역 이중적 성윤리가 적용되는 사회에서 외국군인의 성폭력은 여성 개인의 삶을 더욱 고통속에 몰아넣는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범죄처리과정에서 두 번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성폭력은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죄의식을 갖게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완전범죄이다. 92년 10월 미군전용술집종업원이던 윤금씨씨가 자궁에 콜라병이 박힌 채 살해된 사건, 93년 5월 맥주집을 운영하던 김국혜씨 강간 사건, 98년 1월 허주연씨 살해, 방화사건 등 미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미 그런 것 각오하고 기지촌에 들어간 것 아니냐, 여자들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범죄당한다. 한국에서 미군 역할은 절대적이다. 국가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쉽게 만난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국가안보인가? 여성의 순결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피해여성에게 성폭력의 고통은 그녀의 일생을 지배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은 미군에게 성폭력 당한 딸 부끄러워(미군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춘 여성 취급하는 사회분위기) 아예 자취를 감추기까지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강간, 폭행 등 사건 자체보다 왜 미군과 어울렸는지, 미군과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심지어 처녀였는지 등의 질문에 시달린다. 모멸감에 사건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특히 기지촌 매춘여성들은 포주와 미군에게 또다른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신고를 주저한다. 사건해결도 의심스럽지만 그보다는 신고함으로써 겪게 될 고통(사회적 강간)이 더욱 두렵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역설하면서 여성의 인권문제를 부차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사회 구성원, 그들이 여성이든 아이들이든 각각 안전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나 마느냐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의 개념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2) 강대국 패권주의

미군 성폭력은 여성억압과 약소국에 대한 억압이 중첩되어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제다. 미군정 3년의 역사는 미국과 한국 민중간의 우호관계가 아니라 미국과 분단된 단독정권간의 우호관계였다. 그 후 현대사 역시 마찬가지다. 미군정이 끝난 후 철수했던 주한미군은 한국 전쟁중인 50년 7월 15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노획하였다. 전쟁 직후 53년 10월 미군의 장기 주둔을 보장한 한미상화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을 정치,군사, 경제적으로 장악했다. 주한미군 범죄는 위의 두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군작전지휘권도 빼앗긴 채 전국적으로 8천만평이 넘는 땅을 외국군에게 내어준 것은 미군 범죄의 면죄부를 발부한 것과 같았다.

● 가정. 폭력용인지대?

-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져왔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여 법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훼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보호처분(처분 미상으로 처림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은 처분)이 있어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골자는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명백히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1차적 조치

가정폭력방지법의 기본 방향은 '가정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 아동,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국가가 보장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차적 조치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구조를 강화하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 가정폭력에 대한 2차적 조치

발생한 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확대를 방지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폭력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해자를 격리시킨다. 또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사자의 절차선택권 내지 처분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즉시 아래와 같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합니다.
-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행법은 그 자리에서 연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냅니다.

○ 가정보호처분

①가정폭력에서 가정보호처분은 폭력의 재발 방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법적 '분리명령'과 '민사적' 실현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② '가정보호처분 사건의 명령'은 해당 명령상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더 이상의 법률적 불이익이 없고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을 둡니다. 또한 관련 당사자와 경찰관의 비밀누설 금지 등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둡니다. 처벌조항의 종류에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주거지침입금지 명령, 가해자에 대한 임시퇴거명령, 아동학대의 경우 일시적인 친권상실인 임시친권 명령, 임시 보호명령,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금전배상명령, 가해자에게 구타치료 프로그램·알코올치료 프로그램, 부모훈련 프로그램

그램, 부부역할 훈련 프로그램등이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긴급전화와 상담소의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24시간 신고전화를 받는 상담소가 없습니다. 당장 24시간 상담과 신고가 어려울 경우 경찰서 등과 연결하여 24시간 신고를 받고 그에 따른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아동들에 대한 학업문제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정보제공과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않는다.
-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전에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합니다.

(누구나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니다.
-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줍니다.
-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니다.
-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